

“하늘이 무너졌다” 하의도 ‘통곡의 바다’

■ 생가마을 주민·친인척 표정

“홀홀털고 일어설줄 알았는데...”

서틀버스 등 조문객 맞이 준비

“정말 가셨단 말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荷衣島)는 비통함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폐렴 증세로 입원한 이후 수차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주민들은 끝내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서거한 것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하의면 대리와 후광리에 사는 친척들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전해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 4촌 친척인 소대례(74)씨는 “강한 분이라 홀홀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가시다니...”라며 흐느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주민들은 영농철 바쁜 손놀림을 멈추고 마을회관에 모여 조문객 맞이 등을 논의하는 한편 면사무소와 생가에 마련된 분향

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의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는 박홍수(87)씨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서거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생가를 찾은 김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후배 정화민(65·하의도 후광리)씨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다”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한국의 별이 떨어져 애석하고 비통할 뿐”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특히 지난 4월, 14년 만에 이희호 여사와 함께 고향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을 만났던 주민들은 “고령과 오랜 병환으로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정녕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가 관리를 맡고 있는 성현숙(여·42)씨는 “대통령께서

올해 4월 휠체어를 타고 이희호 여사와 함께 생가를 방문했을 때 만감이 교차한 듯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슬픔에 잠겼다. 서거 소식이 전해진 뒤 하의도를 찾는 조문객도 줄을 이었다.
고혜성(58·광주시 봉선동)씨 부부는 “신안 장산도를 가던 중 배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세계의 인권 지도자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목적지를 바퀴 생가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생가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빈 조문객만도 20여 명이 넘었다.
충남 보령시에서 온 계선유씨 등은 방명록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광주시 북구 일곡동 장광일씨는 ‘존경합니다. 편히 쉬십시오’라는 글을 남기는 등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생가에는 하의면사무소 직원들과 부녀회 회원들이 나와 조문객을 위해 전기 시설 설치와 영정을 준비하는 등 조문객 맞이에 분주했다.
하의면은 분향소를 면사무소 2층에 설치하고 생가를 찾는 조문객을 위해 서틀버스도 준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8일 오후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의도 생가를 찾은 초등학교 후배인 정화민(65)씨가 전시된 사진을 만지며 슬픔에 잠겨있다. /신안 하의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봉하마을 주민들

“빈소 방문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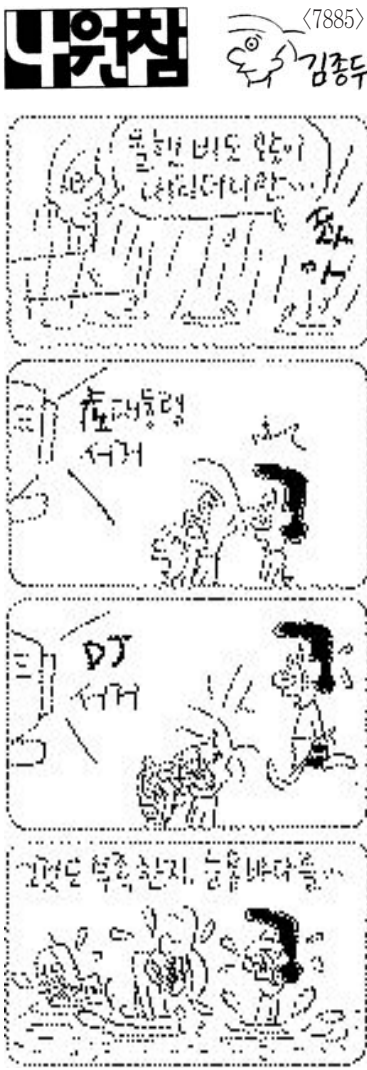
DJ 동상·기념관 건립

목포 전남제일고·목포 삼학도에 추진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큰 충격에 빠졌던 김해 봉하마을 주민들은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인연이 깊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조용호(51) 전 마을 이장은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한번의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주민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며 “마을 주민들과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봉하마을 사저에 머물고 있던 권양숙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김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하고 위로했다. 권씨는 이어 “즉시 서울로 올라가 직접 조문하고 싶다”며 아들 건호씨와 함께 상경해 오후 8시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경남신문 제공)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상 건립은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전남제일고(옛 목포상고) 총동문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념관은 목포시가 삼학도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목포상고·전남제일고 총동문회’는 서거 직후 전남제일고 무아도서관 3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 문제를 비롯, 분향소 설치 및 조문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동문회는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자는데 뜻을 모은 뒤 학교 측과 최종 협의를 거쳐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동상은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전남제일고 교내에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55) 전남제일고 총동문회

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위대한 뜻을 동문과 후배들이 이어받고 영원히 계승하기 위해 교내에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동상 건립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도 기념관 건립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계획이다. 목포시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고려, 산정동 삼학도 복원화사업지구(1만6천여㎡ 규모)의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가칭)’을 건립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기념관은 김 전 대통령의 저서와 활동 기념물 등 자료 전시를 비롯,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평화와 박애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목포=이종행기자 golee@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교도소 생활 의연함 잃지 않았다”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981년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뒤 수감된 청주교도소 당시 교도관이 삼엄한 통제 속에서도 의연했던 김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애도.
○당시 김 전 대통령 전담팀장으로 근무했던 강복기(67) 전 사무관은 “1평 남짓한 감방에 수감돼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했던 김 전 대통령은 교도관 조차 출입이 안 될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채 23개월을 보냈다”며 “한 달에 한 번 10분 정도만 가족을 만나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분은 운동을 제외한 모든 시간동안 책을 읽었으며,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해 주변이 숙연해지기도 했었다”고 소개.
○강 전 사무관은 “의지가 강한 분이셔서 고비를 잘 넘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니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고 추모. /연합뉴스

영남도 애도... 전국이 울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영·호남을 떠나 모든 국민이 큰 슬픔에 잠겼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애증 관계를 맺어왔던 영남지역민의 슬픔은 그래서 인지 더욱 컸다.
하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추모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헌신해온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잃은 것을 부산시민과 함께 애통하게 생각한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도 이날 “김 전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민주화, 인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셨다”며 “그 분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송고한 뜻이 국민화합과 남북 평화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부디 정치권 모두가 김 전 대통령 서거에 오늘날의 한국 상황을 뒤돌아보고 과연 노동자, 서민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 성찰하기를 바란다”며 김 전 대통령의 서민정치를 회고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취약지’였던 영남지역민들도 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최성길(47)씨는 “여러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면서도 매번 오후에처럼 다시 일어서 결국 대통령이 된 분”이라며 “이런 강한 의지는 국가원수로서 큰 귀감”이라고 말했다.
민주화와 남북대화 등 김 전 대

통령의 정치적 업적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광호(56) 부산 민주공원 관장은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금메달을 단 강원도 인제군민의 슬픔도 남달랐다.
인제군에 김대중 기념관 건립을 추진중인 박병용(60)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제에서 민의원에 출마할 당시 탁월한 언변과 통찰력 있는 연설가 반했다”고 회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큰 꿈을 품소 실천에 옮기신 한국 현대사의 큰 별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그린 100원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정부무상보조사업 100가구 선착순)

- ▶ 상한을 넘어서 무료인 고효율 태양광 패널 설치
- ▶ 그린 100원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정부무상보조사업 100가구 선착순)

▶ 설치비용 지원요건

- 1.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2.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3.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태양광주택 설치시 무상보조금 및 자부담

- 1. 태양광주택 설치 - 설치비용 50% 지원, 자부담 50%
- 2.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설치비용 50% 지원, 자부담 50%

상한을 넘어서 무료인 고효율 태양광 패널 설치

승지전력(주) ☎ 060-606-4796 ☎ 010-9605-0091

아이엘리시아

특색 프로그램 제공

아이엘리시아

060-671-1199